

추운 겨울나기...부처님 자비로 열기 '후끈'

우리나라에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25만 정도다. 이 가운데 10만가구는 1장에 6백원 정도 하는 연탄값을 부담할 능력이 안돼 기부받은 연탄으로 겨울을 난다. 하지만 올해 연탄 후원은 절반으로 폭 떨어졌을 상황이다. 지난해 연탄은행이 후원 받은 연탄은 401만2000장이었지만 올해는 208만6000장을 겨우 넘기고 있다.

강추위가 더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온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고 있다. 불교계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부터 이불, 김장까지 나눔 릴레이를 모아본다.

서서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나눴다. 보혜사는 매년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위해 쌀 배달, 주거환경개선, 난방비지원 등 다양한 이웃사랑 실천을 해 오고 있다.

중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 역시 11월 21일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을 위해 3000장의 연탄과 등유 등을 배당했다.

자비 덮고 주무세요 - 솜이불 나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변)가 함박눈이 내렸던 12월 3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모아본다.

천태종 구인사, 연탄 1만장 후원
생명나눔, 솜이불 150채 백사마을에 각 복지관, 이웃위한 김장 릴레이

백사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솜이불 150채를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그동안 받은 사랑과 온정을 이번 이웃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진행한 행사다.

백사마을은 전체 주민의 80% 이상이 최저생계비에 의존해 살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대부분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한파를 버틴다.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고 거주 환경이 가장 열악한 5,6동 주민들에게 솜이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있던 것은 백사마을 주민 일부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하면서 나눔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일면 스님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분



11월 21일 서울 중립종합사회복지관이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에게 연탄 3천장을 전달했다.

들을 직접 찾아가 이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소아마비를 앓는 주민에게 특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김정영 씨와 아웃사이더, 걸그룹 타히티 등이 참석해 이불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사랑당은 손맛 김치 - 김장 나눔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영하)에서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11월 22일 김장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담긴 김치는 모두 1,100kg. 향후 지역 독거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직접 무와 야채를 채썰고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까지 구슬땀을 흘린 이들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코리아센터닷컴 직원들이다. 2011년부터 해마다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두송복지관(관장 김맹자)에서는 무려 3일간 김장을 버무렸다. 복지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김치 2,400kg을 담근 것. 배추 한 포기당 3kg으로 계산하면 800 포기나 되는 셈이다. 김치는 모두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독거어르신 263세대에 라면 5봉지와 함께 전달됐다.

서울 성북구 내 복지관 10개 기관이 모여 '함동 김장 담그기'를 진행한 곳도 있다. 김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윤)에서 열린 11월 18일 김장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약 5000kg의 배추를 버무렸다. 성북구 내 저소득가정 490가구에 가구당 김장 김치 10kg 씩을 선물할 수 있는 양이었다.

김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 후 매년 김장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철 음식을 지원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농협중앙회, 조계종복지재단과 MOU 체결

후원금 농협쇼핑몰 포인트로... 산하기관 배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2월 8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농협a마켓 측의 후원금 전달식도 개최됐다.

업무협약을 맺는 '농협a마켓(<http://www.nhamarket.com>)'은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1월에 구축한 온라인직거래 쇼핑몰이다. 본 협약이후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지하고 해당 후원금을 농협a마켓 포인트로 환산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단은 전달된 농협a마켓 포인트를 재단 산하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배분해 복지기관이 농협a마켓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각 기관 및 소외계층

대상자에 필요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농협a마켓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첫 사회공헌사업으로 2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김치는 전국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최근에는 개인 후원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모범적인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외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생의 끝자락에도 또다른 삶이 있다"

송파노인센터, 11월 26일 노년기 삶방식에 대한 포럼

노년기 삶의 방식과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됐다.

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서울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생의 끝자락에 대한 상상력-내가 내일 이곳에 온다면'을 주제로 11월 26일 포럼을 열었다. 지역주민 및 노인복지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포럼은 노인, 보호자, 시설관계자, 의료, 복지, 법, 윤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현황과 고민,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노년에 대한 열린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송병기 연구원은 '노년, 생의 끝자락과 죽음'에 대한 기초발표를 통해 "결혼, 은퇴, 아이들 교육, 출산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수다를 나누듯 생의 끝자락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재고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례발표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집단프로그램, 재가복지, 주야간이용서비스, 노인전문간호, 돌봄서비스에 대한 각

실무자들의 발표가 진행됐고 토론회 역시 열렸다.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이병순 교수를 좌장으로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연환 교수(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도훈 사무총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강민석 국장(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 남우근 노년정책연구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노년기 삶에 대한 열린 토론을 펼쳤다.

포럼에 참여한 60대의 주민은 "노년에 대한 우울한 기분이 가지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삶에도 다시 삶이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좀 나는 것 같다. 개운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0년 설립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송파구청에서 설립하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사회복지기관으로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 케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연탄 한 장이 아까워" - 연탄 나눔

연탄 한 장이 아까워 추운 겨울을 언 몸으로 지새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천태종 구인사가 연탄 1만장을 지역사회에 후원했다. 연탄은 11월 28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2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누기' 행사에는 구인사 총무원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총 5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연탄을 지원받는 어르신은 "연탄이 아까워 추운 방안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시릴 수가 없다"며 "그러나 그 추운 마음까지 녹여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다.

강원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은)에서도 11월 30일 지역 사찰 보혜사와 함께 장애인 및 독거노인 7가정에 연탄 3,000장을 지원했다. 사랑의 연탄배달에는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직원 8명과 보혜사 주지 지만 스님을 비롯한 신도 10명 등 총 19명이 나



법향 담긴 찻자리
11월 26일 대치노인복지센터(관장 손화정) 입구에 찻자리가 펼쳐졌다. 한복을 곱게 맞춰 입은 다도봉사팀 다담회가 복지센터 개관 3주년을 축하하며 다도를 선보인 것. 다담회는 방문객들에게 차와 다식을 건네며 호응을 받았다. 연일법 역시 넉넉하게 준비해 사찰음식체험기회를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조계종 불은 법인 대표이사 표창이 수여됐다. '품격 있는 노년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치노인복지센터와 뜻을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상이었다. 2부에서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작품발표회인 '이음예술제'가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홍대에 어르신들이 '뺨다'... 스마트폰 사진전

우면복지관, 11월 22·23일 열어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은)은 11월 22~23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손끝으로 청춘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진전시회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던 데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사람사랑봉사단 2기 줌(Zoom)팀의 노력이 있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학생 봉사단과 어르신 45명을 1:1로 매칭,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두 시간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기본조작부터 SNS사용법, 카메라 기능까지 섭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어르신들의 사진작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전시됐다.

품과 Zoom팀의 봉사활동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전 개최 이유에 대해 복지관 측은 "세대차이가 극명한 현대사회 속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어르신들이 감성을 담아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만지는 모습을 보며 세대대를 뛰어넘어 공통점을 발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서울 석촌동 불광교육원에서 '생의 끝자락에 대한 상상력'을 주제로 11월 26일 포럼을 열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법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특징: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특징: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특징: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액좌: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윗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2014년 12월 22(일요일) 개강. 매주 (일,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중파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